

책에서 시작되어 책에서 끝나는 삶

읽어야 할 책. 읽고 싶은 책은 너무 많지만...

호영송

작가·'책세상' 주간

'책속에 처형된' 사르트르의 운명

"내 인생은 책에 둘러싸여 시작되었으며 아마 죽을 때 또한 책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 이것은 엄청난 독서가이며 또 대단한 철학가이자 작가였던 사르트르의 말이다. 남달리 조숙한 사르트르는 유년시절부터 마치 '작은 신전 같은' 조부의 서재 속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차츰 책에 가까워지면서 자라났다. 나는 이 빼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 사르트르가 책 사이에서, 여느 아이들처럼 이웃친구들과 뛰어놀고 개구장이 노릇을 하는 대신, 인류 수천년의 지혜와 고뇌를 익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사르트르는, 더욱이 사팔뜨기 눈을 하고 있는 바람에 동네의 여느 평범한 소년들과 가까이 어울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결혼가정 비슷한 형편이어서 그는 외조부 내외에게 맡겨져서 자라고 있었으니, 그리고 그 외조부는 대단한 장서가였으니, 사르트르는 숙명적으로 책들 사이에 던져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좀 과장 표현하면 사르트르는 '책 속에 처형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처형은 사르트르로 하여금 비범한 정신적 성숙을 가능하게 했으며, 마침내 「구역」과 「벽」같은 소설의 작가로, 또는 「출구 없는 방」 「존경할 만한 창부」같은 작품의 극작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와 무」의 철학가로서 20세기 정신사에서 허물어질 수 없는 '책의 성'을 쌓아올리게끔 했던 것이다. '책의 성'이라고 비유한 것은 사르트르가 이룩한 업적이 결국 책의 형태로 결실됐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회고록 「말」에서 술회했던 것처럼 그의 삶은 책 속에서 시작되고 책 속에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중요한 이후조차도 그는 책으로, 그것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불멸의 책으로 남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책 속에 던져진, 또는 처형된 운명은 일면 고통스럽고 고뇌에 찬 것이겠지만, 매우 영광스런 것이기도 한 것이다.

소년시절의 독서체험

생각해보면 인류의 팔목할 만한 문화적 성취나 영광, 또는 좌절과 고뇌는 대체로 책 속에 응축되어 담겨져 있다. 동서의 고전이나 경전이 모두 책이라 할 수 있으며, 뛰어난 업적들이 책 속에 담겨 있기에 양서를 모아들이 어떤 공간은 그것이 개인의 작은 방이건, 거대

나는 서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십만권의 책 앞에 서면,

읽어야 할 책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중압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읽어야 할 책,

또는 한 사람의 에디터로서

읽지 않으면 안될 많은 책들,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서적들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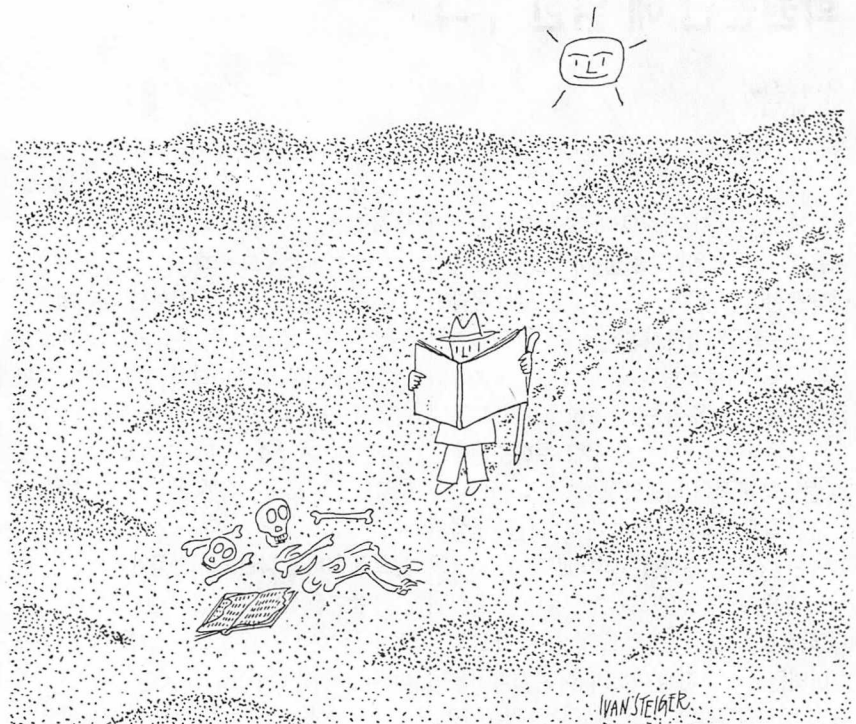
전전긍긍하게 된다.

한 도서관이건 아름다운 寺院처럼 위대하고 심오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나는 소년시절 마음이 울적하고 고독할 때 더러 성당을 찾아가 조용한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명상에 잠기곤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가톨릭 재단의 중학교를 다닌 것과도 상관이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영세를 받지도 않았고 가톨릭 교도도 아닌 내가 성당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나는 많은 책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 같은 공간이 가까이, 적어도 성당만큼 가까이 있었다면 나는 보다 자주 그곳에 이끌려 갔을 것이다. 나는 소년시절 서울 돈암동에 살고 있었는데, 기껏 책이 가장 많은 공간을 찾아봐 야 내가 다니는 학교 도서관 정도였다. 그 도서관은 장서라야 수백권 이내의 빈약한 실정이었다. 그곳에 있는 책은 대개 한번씩 훑어보았기에 더 이상 나를 끌어 잡지 못하는 터였다. 그리고 훗날 국립도서관도 여러차례 이용하게 는 되지만, 대개의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입시공부방이 되어버리는 사정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독서를 즐기는 나같은 경우는 자리 확보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노상 책에 갈증을 느끼며 서점을 들락거리곤 했으나, 주머니에는 학교 통학 차비마저 제대로 없는 형편이었으니, 사고 싶은 책이 나와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읽고 싶은 책, 사고 싶은 책이라면 한 서점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아가며 읽다가 입맛을 다시며 그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고 서점을 물러난다. 그 다음에는 이웃의 다른 서점을 찾아가서 역시 주인



이나 점원의 눈치를 살피며 책장을 넘기다가, 또 제3, 제4의 서점을 찾은 것이었다. 그 당시 동대문 일대에는 많은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순례나마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다.

일년에 몇권쯤 책을 살 기회를 갖게 되는데, 사고 싶어 버려던 책을 사들인 뒤에는 구름이라도 탄 기분이 되어 그것을 읽고 또 거꾸 읽었다. 그때와 같은 책에의 갈증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책의 결핍상태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1950년대, 또는 1960년대)의 정신적 빈곤의 중요하 까닭도 저절로 규명될 것이다.

책의 축복을 누리는 사회

어리석은 가정이지만, "그 당시의 독서 여건이 지금의 몇분의 일만이라도 됐다면, 나는 어떻게 자라났을까?"하고 생각해볼 때가 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책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엄청나게 큰 서점의 규모며, 그 서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십만권의 책들을 보노라면 때로는 현기증이 나기도 한다. 그리고 내가 읽어야 할 책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책들의 극히 일부를 손에 잡고 뒤적거리다 말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나는 내가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읽어야 할 것, 또는 한 사람의 에디터로서 읽지 않으면 안될 많은 책들,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서적들 앞에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집이나 사무실에는 항상 읽을 책이 놓여 있지만, 이동중(차편)에도 읽으려고 가방에는 한두권의 책을 챙겨놓고 다닌다. 그렇게 해도 나는 읽어야 할 것의 몇분의 일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르트르같이 탁월하며 철저한 지성, 그리고 책에서 시작해서 '책으로 結晶'되어버린, 참다운 책의 사람'을 생각해보면서 착잡한 느낌에 빠지곤 한다. 그의 명석함, 깊은 통찰력, 그리고 심오하며 심각함, 철저하며 진지함... 그러한 사르트르가 너무 큰 존재라서 그런지 나는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나는 사르트르를 모방하거나 흉내내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배우고자 할 뿐이다. 내가 사르트르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책을 헛된 지성의 포즈로서가 아니라 참된 탐구와 모험의 정신으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또 책 없는 공간에서는 산소의 희박함을 느낄 때처럼 답답해 하고, 책을 손에 잡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치 않고, 책의 운명을 생각함으로써 세계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 거짓된 가치의 책을 거부하고 진실된 가치의 책을 찾아 시간의 살을 말리는 사람, 책이 없는 고대 광살보다는 책이 있는 오두막을 택하는 사람, 책이 없이는 정신의 황폐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책을 읽지 않고는 입안에 가시가 돋는 듯한 불편을 느끼는 사람. 책다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뇌나, 설령 그것이 헛된 徒勞에 그친다 해도 바위를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처럼 무엇이 끄적거리고, 참된 책을 쓰기 위해 거짓된 책의 권위를 깨부수려는 사람, 책을 통하여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점점 늘어날 때 우리 사회는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